

# 韓國漢字音 蟹攝韻의 母胎別 層位에 대하여

-日本漢字音과의 比較를 中心으로-

李京哲\* · 崔智淳\*\*

(e-mail: kanzi22@empal.com · tomoko0604@hanmail.net)

---

## 目次

---

1. 序論	4. 3等韻
2. 1等韻	4.1. 開口3等 祭韻 魚韻 · 祭韻 감류 · 廢韻
2.1. 開口1等 哈韻 · 泰韻	4.2. 合口3等 祭韻 魚韻 · 祭韻 감류 · 廢韻
2.2. 合口1等 泰韻 · 灰韻	
3. 2等韻	5. 4等韻
3.1. 開口2等 皆韻 · 佳韻 · 夬韻	6. 結論
3.2. 合口2等 皆韻 · 佳韻 · 夬韻	참고문헌

---

## 1. 序論

한국한자음의 모태에 대해서는 滿田新造(1926)의 南北混合說, 有坂秀世(1936)의 宋代開封音說, Karlgren(1954)의 隋·唐初北方音說, 河野六郎(1968)의 唐代長安音說 등을 들 수 있으나, 최근의 주요 연구는 權仁澣(1997, 2006), 伊藤智ゆき(2002), 金武林(2006, 2007, 2012), 權赫竣(2000), 李準煥(2011a, 2011b) 등 唐代 또는 그 이후의 층을 한국한자음의 主層으로 보고 있어, 河野六郎(1968)의 唐代長安音說이 가장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른 관점에서 朴炳采(1971)의 切韻音說, 辛容泰(1982)의 南北朝期江南·江東音說, 최희수(1996)의 上古音說 등이 있으며, 李京哲(2001, 2002a, 2002b, 2003a, 2012a, 2012b, 2012c, 2012d, 2013)에서는 南北朝音·切韻音混合說을 제기하였다.

\* 동국대학교(seoul campus) 일어일문학과 교수, 日本語音韻論, 제1저자.

\*\* 동국대학교(seoul campus)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日本語音韻論.

이에 李京哲·崔智淳(2013, 2014)에서는 한국한자음의 曾攝韻과 遇攝韻이 秦音 이전의 층을 모태로 하고 있음을 논증하였고, 이어서 한국한자음 蟹攝韻의 모태에 대해서 고찰해 보기로 한다.

본고에서는 한국한자음을 5세기 南北朝音의 字音體系를 반영한 吳音 및 8세기 秦音의 字音體系<sup>1)</sup>를 반영한 漢音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한자음 蟹攝韻에 대한 모태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모태의 판별에서 南北朝音은 A로, 切韻音은 B로, 秦音은 C, 近世音은 D로 표기한다. 또한 南北朝音 이전의 上古音은 -A로 표기하며, 두 층 이상의 가능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은 이를 병기한다<sup>2)</sup>.

한국한자음과 일본한자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조하였다.

한국한자음: 新增類合, 訓蒙字會, 千字文, 六祖, 眞言·三檀, 翻譯, 小學, 論語, 孟子, 大學, 中庸, 孝經<sup>3)</sup>

吳音: 法華經, 般若波羅蜜多經, 新譯華嚴經, 光明眞言, 承曆音義, 類聚名義抄<sup>4)</sup>

漢音: 蒙求, 群書治要, 三藏法師傳, 本朝文粹, 佛母大孔雀明王經, 文鏡秘府論<sup>5)</sup>

## 2. 1等韻

### 2.1. 開口1等 哈韻·泰韻

<表1> 開口1等 哈韻의 한국한자음

字音	해당례	母胎
-ei	기改ᄒᄡᄢ該(見k)/기開(溪k <sup>h</sup> )/이愛優이·애哀(影ʔ)/히海	AB

- 1) 8세기 唐代의 長安音인 秦音에서는 그 이전의 南北朝音, 切韻音과 다른 여러 가지 음운변화가 일어났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輕唇音化와 3等을류의 各류에의 합병 등을 들 수 있다. 일본 吳音은 輕唇音化를 반영하지 않은 字音形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 漢音은 輕唇音化의 영향을 받은 字音形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일본 漢音은 3等을류가 各류에 합병된 字音形을 보이고 있으며 日本 吳音은 3等 各을류를 구별하고 있다.
- 2) 中古音은 5세기의 南北朝音, 7세기의 切韻音, 8세기의 秦音으로 세분할 수 있는데, 한국한자음의 모태를 논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세 시기로 세분할 필요가 있으며, 이 세 시기의 음운변화가 한국한자음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가 한국한자음의 모태를 규명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이다.
- 3) 權仁瀚(2009)에서 위의 자료를 참조하였다.
- 4) 法華經은 小倉肇(1979), 般若波羅蜜多經은 金正彬(2007), 新譯華嚴經은 榎木久薰(1988), 光明眞言은 榎木久薰(1989), 承曆音義는 小倉肇(1979), 類聚名義抄는 沼本克明(1995)의 分韻表를 사용한다.
- 5) 蒙求, 群書治要, 三藏法師傳, 本朝文粹는 佐々木勇(2009), 佛母大孔雀明王經은 李京哲(2005), 文鏡秘府論은 柏谷嘉弘(1965)의 分韻表를 사용한다.

	醢(曉h)/히咳孩頰(匣h)/디帶戴(端t)/티胎態台怠(透t <sup>h</sup> )/디貸代岱袋黛待臺擡티殆苔怠迨殆(定d)/릭來萊棘(來l)/빅(竝b)/지再宰毅哉栽載災災菑(精ts)치採彩菜綵(清ts <sup>h</sup> )/지纒才在材財裁(從dz)/치齒(穿tch)/식塞賽(心s)	
-ai	개概漑(見k)/개慨鎧愷凱愷(溪k <sup>h</sup> )/애碍(疑ŋ)/애埃익·애哀(影ʔ)/대歹(端t)/내乃耐甯(泥n)	C
-oi	외賚(來l)	D
기타	식猜(清ts <sup>h</sup> )/식腮顛(心s)/즈肅(從dz)/지毅(精ts)	

<表2> 開口1等 泰韻의 한국한자음

字音	해당례	母胎
-ai	개丐蓋(見k)/애艾(疑ŋ)/애藹(影ʔ)/해害(匣h)/태汰泰太(透t <sup>h</sup> )/대·태大대鈹大(定d)/내奈(泥n)/채蔡(清ts <sup>h</sup> )	AB
-oi	외賴瀨외·라賴(來l)	D
-ei	디帶(端t)	C
기타	채蔡(清ts <sup>h</sup> )/외·라賴(來l)/애艾(疑ŋ)	

<表3> 開口1等 哈韻·泰韻의 中古音의 변화 및 한일한자음 반영 비교표

韻	南北朝音 <sup>6)</sup>	切韻音	秦音	吳音	漢音	東音
開口1等 哈韻	-ai	-ai	-ai	-ai	-ai	-ei
				-e		-ai
				-ei		-oi
開口1等 泰韻	-ai	-ai	-ai	-ai	-ai	-ai
				-a		-oi
						-ei

<表1·2·3>과 같이 開口1等 哈韻은 한국한자음에서 주로 -ei형으로 나타나며, 그 밖에 -ai, -oi형 등이 혼재하고 있다. 일본 漢音은 哈韻·泰韻 모두 -ai형으로, 吳音도 대부분 -ai형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1拍의 -e형과 -ei형이 일부 혼재<sup>7)</sup>하고 있다.

哈韻과 重韻을 이루고 있는 開口1等 泰韻은 한국한자음에서 주로 -ai형으로 나타나며, 그 밖에 -oi<sup>8)</sup>, -ei형 등이 혼재하고 있다. 吳音에서는 대부분 -ai형

6) 南北朝音, 切韻音, 秦音은 李京哲(2001, 2003a, 2003b)과 河野六郎(1979b)의 再構音을 참조로 작성하였다.

7) 1拍의 -e형은 二重母音을 單母音化한 字音이지만 실제로는 ai·ai를 반영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즉 連母音의 회피와 拍의 관여가 작용하여 -e형으로 표기하였고, 上代特殊假名遣이가 소멸한 후에도 표기습관이 남아 1拍의 형태가 공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吳音에서 -ai형, -e형, -ei형의 혼재는 音節構造가 다른 중국어를 수용할 경우 開音節構造인 일본어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수용태도가 작용된 결과로 보인다.

8) 한국한자음 -oi형의 반영인 [賴瀨賴/외]에 대하여 金武林(2006:114)과 李敦株(1974:72-76)는 近世音의 반영으로 추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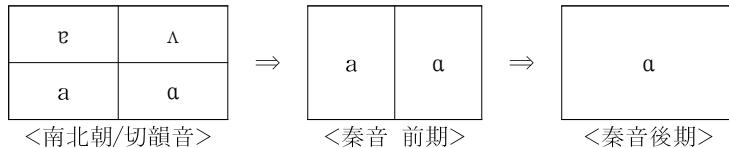
으로 나타나며, 韻尾가 없는 1拍의 -a형이 혼재하고 있다.

哈韻과 泰韻은 한국한자음에서 -ei형과 -ai형으로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반영에 대하여 河野六郎(1979a:456)는 哈韻과 泰韻의 重韻 구별을 인정하지 않고 -ei형을 b층, 즉 秦音으로 보았고, -ai형을 c층으로 보았다<sup>9)</sup>. 그러나 有坂秀世(1957:302)는 한국한자음에서 哈韻은 -ei형으로 나타나지만, 泰韻은 -ai, -oai형으로 나타나 開口1等 重韻이 구별된다고 하였으며, 伊藤智ゆき(2002:135-136)도 현대 廣州 방언에서는 지금도 哈韻과 泰韻이 구별되고 있는 점에서 -ei형과 -ai형은 哈韻과 泰韻의 開口의 차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한편 朴炳采(1971:134, 290, 425)와 李潤東(1997:166)은 -ei형과 -ai형을 秦音 이전의 층인 切韻音의 반영으로 보고 있다. 朴炳采(1971:134, 290, 425)는 哈韻과 泰韻이 서로 변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ei형과 -ai형은 慧琳音 이전의 中古音, 즉 切韻音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였다<sup>10)</sup>.

蟹攝 開口1等에서는 哈韻-ai과 泰韻-ai<sup>11)</sup>이 重韻을 이루고 있다. <表3>과 같이 南北朝音·切韻音을 통해 유지된 1等 重韻은 後舌母音으로 低位 a와 中位 ʌ의 대립관계에 있다. 한국한자음은 1等 重韻과 2等 重韻을 低位母音이나 中位母音이나에 의해서만 구별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어의 底中位母音에 前舌과 後舌의 구별이 없기 때문이다. 1等 重韻과 2等 重韻은 각각 切韻音까지 그 구별을 유지하다가 秦音 前期에 1等韻은 1等韻끼리 2等韻은 2等韻끼리 합류하였으며, 秦音 後期에는 1等韻과 2等韻도 합류하였다. 이 主母音의 한국한자음에의 반영을 도식화<sup>12)</sup>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1>



9) 河野六郎(1979a:451-456, 498)는 哈韻과 泰韻 開口가 구별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예외가 많고, 灰韻과 泰韻 合口가 동일하게 -oi형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哈韻과 泰韻 모두에서 -ei형을 舊層으로, -ai형을 新層으로 보았다.

10) 朴炳采(1971:134, 290, 425)는 河野六郎(1979:152-153)가 한국한자음에서 蟹攝의 경우에도 ai>ai의 구별은 없었고, 慧琳音처럼 重韻의 구별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논거는 한국한자음의 모태론에 대한 어떤 선입견의 소치로밖에 볼 수 없다고 하였다.

11) 哈韻의 中古音을 Karlgren·李芳桂는 ai로, 董同龢는 Ai로 재구했으며, 上古音을 əg, əd 등으로 재구하였다. 泰韻의 中古音을 Karlgren·李芳桂는 ai로, 董同龢는 ai로, 上古音을 Karlgren은 ād로, 李芳桂는 ad로, 董同龢는 ad로 재구하였다. Karlgren은 ai와 ai의 차이를 長短의 차이로 보았고, 董同龢는 모음의 음색에 의한 차이로 보았다.

12) 李京哲(2012b:272, 281)을 참조하였다.

2等	1等		한국한자음 의 반영
e	Λ	⇒	/으 e/
a	α		/아 a/

따라서 한국한자음에서 咍韻 -Λi를 -ei형으로 수용한 것은 <그림1>과 같이 Λ가 α로 합류하기 전인 秦音 이전의 층을 모태로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李京哲(2012b:273-274)에서 언급했듯이 한국어에 /으 e/가 漢字音 수용 당시부터 존재하고 있었으며, 低位母音 /아 a/와 변별되는 中位母音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ai형으로 수용한 것은 Λ가 α로 합류한 이후 즉 秦音 이후의 층을 모태로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한국한자음에서는 咍韻을 -ei형으로, 泰韻을 -ai형으로 구별하여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泰韻의 -ai형 역시 1等 重韻이 합류하기 이전, 즉 秦音 이전의 층을 모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2.2. 合口1等 泰韻·灰韻

<表4> 合口1等 泰韻의 한국한자음

字音	해당례	母胎
-oi	회檜脣脣澮(見k)/외外(疑ŋ)/회會繪(匣h)/외(來l)/최最(精ts)	C
-ai	패貝沛(幫p)	AB

<表5> 合口1等 灰韻의 한국한자음

字音	해당례	母胎
-oi	괴傀塊魁 회恢(溪k <sup>h</sup> )/외煨(影ʔ)/회晦悔誨賄脄((曉h)/)괴 · 회槐 회回徊迴徊徊迥迥迥迥(匣h)/퇴堆(端t)/퇴退腿推推 透(透t <sup>h</sup> )/퇴頹癘魁(定d)/뇌 · 외餵(泥n)/외雷擂儡疊磊(來l) 외 · 리未(來l)/최催淬(精ts)/최摧죄罪(從dz)	AB
-ei	되碓對(端t)/되慙讞(定d)/늪內(泥n)/외 · 리未(來l)/빅杯 背輩梏(幫p)/빅坏胚配醅(滂p <sup>h</sup> )/빅培陪培裴裴 · 배倍(竝b) 빅妹味每梅莓酶煤煤霉莓 · 매패(明m)	AB
-ai	빅 · 배倍(竝b)/빅 · 매패(明m)	C
기타	위桅(疑ŋ)/위偎隈/쇄碎(心s)/의醜(疑ŋ)/궤潰(匣h)/슈粹(精ts)	

&lt;表6&gt; 合口1等 泰韻·灰韻의 中古音의 변화 및 한일한자음 반영 비교표

韻	南北朝音	切韻音	秦音	吳音	漢音	東音
合口1等 泰韻	-wai	-wai	-wai	-we -ai	-wai -ai	-oi -ai
合口1等 灰韻	-wai	-wai		-we -wai -ai	-wai -ai	-oi -ei -ai

<表4·5·6>과 같이 合口1等 泰韻은 한국한자음에서 주로 -oi형으로 반영되었고 -ai형이 혼재하고 있으며, 灰韻은 주로 -oi형과 -ei형으로 반영되었고 -ai형 등이 혼재하고 있다. 일본 漢音에서는 泰韻과 灰韻 모두 -wai형, -ai형으로 나타나 秦音에 걸친 泰韻과 灰韻의 합류를 반영하고 있다. 일본 吳音에서는 泰韻과 灰韻 모두 -we형이 주된 반영이며, -wai형, -ai형도 혼재하고 있다.

한국한자음에서 泰韻의 開口韻이 -ai형으로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 合口韻은 당연히 -oi형으로 반영되어야 하지만, -oi형으로 출현한다. 이러한 반영에 대하여 河野六郎(1979a:498)은 -oi형을 b층, -oi형을 c층에 두고 있다<sup>13)</sup>. 그리고 이러한 점은 合口1等 泰韻이 灰韻으로 합류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伊藤智ゆき(2002:139-142)는 河野六郎(1979a:451-456, 498)가 주장한 蟹攝 1等韻은 -ei와 -ai, -oi와 -oi가 합류한 1等 重韻을 단계적으로 옮겨 놓은 것이라는 해석은 타당하지 않으며, 이들 韻은 開口에서는 구별되고 合口에서는 합류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한편 朴炳采(1971:134-135)는 [合口音w+主母音a]가 /오o/로 먼저 1단계의 音韻結合이 이루어지고, 이 /오o/에 다시 韻尾 /이i/가 合成되어 /외oi/로 실현된 것으로 파악하여, 이를 切韻音의 반영으로 해석하고 있다. 李潤東(1997:171)은 合口1等 泰韻이 /왜oai/로 실현됨이 마땅하지만 核母音 a가 介母 u와 韻尾 i의 영향으로 약간 위 앞으로 끌려 들어가 A<sup>14)</sup>와 합류한 결과 灰韻과 마찬가지로 /외oi/가 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金武林(2006:114)은 -uai(中古)>-ui(近代)>-uei(現代)의 변화를 거친 近代音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合口1等 泰韻 -wai는 선학들의 지적처럼 한국어에서 /왜oai/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이는 시대적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즉 한국한자음에서 /위ui/는 中古音을 /wi/로 인식한 것의 반영이지만, /외oi/는

13) 河野六郎(1979a:455)은 “開口의 상황에서 보면 泰韻 合口는 당연히 -oi가 되어야만 하는데 실제로는 -oi쪽에 중심이 놓여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한자음에 있어서 [외]와 [에]는 中古音의 哈韻과 泰韻의 구별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단순하게 말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14) 본고에서 말하는 1等重韻의 A에 해당한다.

中古音을 /wɛi/로 인식한 것의 반영인 것이다.

따라서 한국한자음에서 泰韻의 撮口韻이 -oi형으로 출현하는 것은 泰韻과 灰韻의 1等 重韻이 합류하는 秦音을 반영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灰韻 -wɛi를 한국어로 수용할 경우 [撮口性+/ɔv/+i]가 되는데, 母音調和로 인해 [/오o+/ɔv/+i]가 되며, 이 경우 [/오o+/ɔv/]는 2音節化되어 1音節로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ɔv/를 탈락시키고 1音節의 -oi형으로 출현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한국한자음의 -oi형은 그 主母音을 /ɔv/로 수용하여 이를 탈락시킨 형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vi형과 같이 秦音 이전의 층을 모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한자음 脣舌齒音의 -vi형의 반영은 脣舌齒音에 撮口性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한국어 자체의 특성에서 보면, 이는 開口韻인 哈韻과 동일한 반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泰韻의 -ai형과 구별하여 반영했다는 점에서 秦音 이전의 층을 모태로 한다는 증거가 된다. 또한 -ai형으로 반영된 것은 主母音을 低位母音의 /아a/로 수용했다는 점에서 泰韻과 합류한 秦音을 모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 3. 2等韻

#### 3.1. 開口2等 皆韻·佳韻·夬韻

<表7> 開口2等 皆韻의 한국한자음

字音	해당례	母胎
-vi	지皆階 ㅎ階孩(見k)/지措(溪k <sup>h</sup> )/외·애駭(疑ŋ)/지齋(莊tʃ)/비拜(幫p)/비(並b)/미埋霾(明m)	AB
-ai	개介芥疥疥(見k)/애挨의·애駭(疑ŋ)/애·회·의噫(影ʔ)/괘韠(並b)	C
-jəi	계界階戒誠犗(見k)/혜·ㅎ薤계械(匣ŋ)/제濟(牀dʒ)	AB
기타	애·회·의噫(影ʔ)/쇠豺(牀dʒ)/비戀(並b)/ㅎ骸駭(曉h)/ㅎ諧혜·ㅎ薤(匣ŋ)/혜薤(匣ŋ)	

<表8> 開口2等 佳韻의 한국한자음

字音	해당례	母胎
-ai	개街(見k)/애崖涯(疑ŋ)/애矮(影ʔ)/내孌(娘ŋ)/채·쇄債(莊tʃ)/채·쇄釵(初tʃ <sup>h</sup> )/새·쇄·쇄灑(心s)/매賣(明m)	AB
-vi	히懈靡히·하解(見k)/외·익隘(影ʔ)/히蟹避(匣ŋ)/치·차·치差(初tʃ <sup>h</sup> )/미買賣(明m)	C
-a	가佳히·하解(見k)차釵치·차·치差(初tʃ <sup>h</sup> )	AB

기타	채 · 債(莊tʃ)/새 · 霽 · 世灑(心s)/혜鞋(匣h)/새 · 霽 · 세灑(心s)/이 · 曷陰(影ʔ)/히(匣h)/혜鞞(匣h)/치 · 차 · 치差(初tʃʰ)/식柴(牀ʃ)	
----	-------------------------------------------------------------------------------------------------	--

<表9> 開口2等 夬韻의 한국한자음

字音	해당례	母胎
-ai	애龔(影ʔ)/태薑(透tʰ)	AB
기타	계轄(見k)	

<表10> 開口2等 皆韻 · 佳韻 · 夬韻의 中古音의 변화 및 한일한자음 반영 비교표

韻	南北朝音	切韻音	秦音	吳音	漢音	東音
開口2等 皆韻	-ei	-ei	-ei -a	-e	-ai	-ei -ai -jəi
開口2等 佳韻	-ai	-ai		-e	-ai -a	-ai -ei -a
開口2等 夬韻	-ai	-ai		-e		-ai

開口2等 皆韻은 한국한자음에서 주로 -ei형으로 나타나고 -ai형, -jəi형 등이 혼재하고 있다. 일본 漢音은 -ai형으로, 吳音은 주로 -e형으로 나타난다.

한국한자음에서 皆韻은 주로 -ei형으로, 佳韻 · 夬韻은 -ai형으로 반영되었는데, 河野六郎(1979a:455-456, 459)는 皆韻이 -ei형, 佳韻과 夬韻이 -ai형으로 나타나지만 예외가 많다는 점에서 重韻의 합류를 반영한 것으로 보고, 1等韻의 경우와 동일하게 -ei형을 b층, -ai형을 c층으로 해석하였다<sup>15)</sup>. 이에 대해 伊藤智ゆき(2002:142-144)는 -ei형과 -ai형의 혼재가 韻母의 합류에 동반되는 동시대적인 혼란을 반영하는 경우<sup>16)</sup>라고 설명하였다.

반면 朴炳采(1971:129, 134)는 1等 重韻과 마찬가지로 2等 重韻도 구별되고 있기 때문에 切韻音을 반영한 것으로 보고, 소수의 혼동 예는 합류 후의 새로운 층인 『慧琳音義』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

한국한자음 皆韻의 -ei형은 2等 重韻인 佳韻 · 夬韻의 -ai형과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秦音 이전의 층을, -ai형은 2等 重韻의 합류상을 반영하기 때문에 秦音을 모태로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開口2等 佳韻은 한국한자음에서 -ai형 이외에 -ei형<sup>17)</sup>, -a형 등이 혼재하고

15) 이들 重韻은 『慧琳音義』와 같이 구분되지 않았다고 추정했다.

16) 伊藤智ゆき(2002:142-144)는 이 韻들의 음가가 [·i]와 [·i:]의 중간이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였다.

17) 李潤東(1997:173)은 皆 · 佳 · 夬의 三重韻이 중국에서 합류한 후 그 영향을 받아 皆韻과 혼동된

있다. 일본 漢音은 -ai형과 -a형이 혼재하고 있으며 吳音은 -e형으로 나타난다.

佳韻의 한국한자음 -ai형은 皆韻의 -ei형과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秦音 이전의 층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ei형은 皆韻과 동형이므로 秦音의 반영일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한국한자음 -a형의 반영에 대해서 살펴보면, 金武林(2007:125)은 佳韻이 麻韻에 합류한 中古音과 早期近代音의 중단단계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일본 吳音에서도 韻尾 i가 탈락된 字音形<sup>18)</sup>이 출현하고 있으며, 한국한자음에서도 韻尾 i가 탈락된 字音形이 출현하고 있어, 蟹攝 1·2等 諸韻에는 中古音의 각 시대에 걸쳐 韻尾 i가 약화 내지 탈락된 字音이 方言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李京哲(2012b:276)에서 언급했듯이 佳韻의 麻韻에의 합류는 後期中古音의 특성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에 대해서는 韻尾 i가 약화 내지 탈락된 方言의 존재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開口2等 夫韻은 한국한자음에서 -ai형, -jəi형으로 나타난다. 일본 漢音은 조사하는 자료에 용례가 없고, 吳音은 -e형으로 나타난다.

佳韻·夫韻의 경우는 南北朝音부터 切韻音까지 -a이었던 主母音이 低位와 中位の 구별이 없어지고 다시 前舌과 後舌의 구별이 없어져 하나의 -a로 통합된 秦音에서는 音韻으로서의 -ai에 해당하지만 음성상으로는 [-ei]로 高位前舌化하는 환경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즉 秦音에서 합류한 佳韻·夫韻과 皆韻은 音韻으로서의 -ai에 해당하지만 音聲上으로는 [-ei]로 실현되는 것이다. 따라서 佳韻·夫韻을 한국한자음에서 -ai형으로 반영한 것은 切韻音까지를, -ei형으로 반영한 것은 秦音을 모태로 한다고 판단된다.

### 3.2. 合口2等 皆韻·佳韻·夫韻

<表11> 合口2等 皆韻의 한국한자음

字音	해당례	母胎
-oi	괴怪乖괴·회·웨·웨壞(見k)/괴·왜歪(影?)/회懷외淮(匣h)	AB
-ei	비拜(幫p)/빅排(並b)/미埋霾(明m)	AB
기타	괴·회·웨·웨壞(見k)/웨贖(疑ŋ)/괴輓(並b)/괴·왜歪(影?)/빅億(並b)	

<表12> 合口2等 佳韻의 한국한자음

字音	해당례	母胎
----	-----	----

에이며, 이는 국어 음운에서도 변별성이 약화되어가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18) 再サ(哈開1), 太々(泰開1), 佳カ(佳開2), 派ノ(佳合2) 畫グワ(佳合2), 話ワ(夫合2) 등.

-oai	괘掛拐拐掛(見k)	AB
-oa	와蛙(影?) / 화畫(匣h)	AB
-ai	괘派瀾(滂p <sup>h</sup> ) / 괘牌稗(並b)	AB
-ei	미埋霾(明m)	ABC
기타	과(並b)	

&lt;表13&gt; 合口2等 夬韻의 한국한자음

字音	해당례	母胎
-oai	괘快噲(溪k <sup>h</sup> )	C
-ai	괘敗(並b)매邁(明m)	B
-oi	최嘍(並b)	C
기타	화話(匣h)	

&lt;表14&gt; 合口2等 皆韻·佳韻·夬韻의 한일한자음 반영 비교표

韻	南北朝音	切韻音	秦音	吳音	漢音	東音
合口2等 皆韻	-wei	-wei	-wei	-we -wai	-wai	-oi -ei
合口2等 佳韻	-wai	-wai		-we -ai	-wa -wai	-oai -oa
合口2等 夬韻	-wai	-wai		-we	-wai	-oai -ai

합口2等 皆韻은 한국한자음에서 주로 -oi형으로 나타나며, -ei, -uoi형 등이 혼재하고 있다. 佳·夬韻은 -oai형으로 나타나, 한국한자음의 합口2等은 皆韻과 夬·佳韻을 구별하고 있다. 일본 漢音은 -wai형으로 나타나고 吳音은 대부분 -we형으로 나타나며 -wai형이 혼재하고 있다.

한국한자음에서 皆韻의 主母音이 -e로 반영된 것은 開口1等 哈韻에서 서술했듯이 한국어에 /ɛ/가 한자음 수용 당시부터 존재하고 있었으며, 低位母音 /아a/와 변별되는 中位母音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한국한자음에서는 低位後舌母音 a와 低位前舌母音 a를 /아a/로, 中位後舌母音 ʌ와 中位前舌母音 e를 /ɛ/로 변별하여 수용한 것이기 때문에 重韻이 합류하기 이전, 즉 秦音 이전의 층을 모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합口2等 佳韻은 한국한자음에서 -oai형과 -oa형이 혼재하고 있다. 일본 漢音은 -wa형과 -wai형이 혼재하지만 -wa형이 우세하며, 吳音은 -we형으로 唇音字는 -ai형으로 반영되었다. 합口2等 夬韻은 한국한자음에서 -oai형과 -ai형 등이 나타난다. 일본 漢音은 -wai형으로 吳音은 -we형으로 반영되었다.

夬·佳韻의 한국한자음도 皆韻과 구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체계상

秦音 이전의 층을 모태로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陰韻尾 i가 탈락한 형태의 -oa형 역시 동일한 층으로 해석할 수 있다.

## 4. 3等韻

### 4.1. 開口3等 祭韻 을류 · 祭韻 감류 · 廢韻

<表15> 開口3等 祭韻 을류의 한국한자음

字音	해당례	母胎
-əi	계揭憩(溪k <sup>h</sup> )/계偈(群g>k)	AB

<表16> 開口3等 祭韻 감류의 한국한자음

字音	해당례	母胎
-jəi	예藝(疑ŋ)/예裔勳曳(喻'j)/테(徹t <sup>h</sup> )/례 · 러礪례·네例(來l) /제祭際際(精ts)/제製制(照tc)/세 · 서勢世世貰(心s)/세 · 서철(禪z>ɕ)/弊(並b)	AB
-jə	러厲勵蠣厲례 · 러礪(來l)/세 · 서勢(心s)/서筮噬세 · 서철 (禪z>ɕ)	AB
기타	제製(照tc)	

<表17> 開口3等 廢韻의 한국한자음

字音	해당례	母胎
-ai	애제又(疑ŋ)	A

<表18> 開口3等 祭韻 감을류 · 廢韻의 中古音의 변화 및 한일한자음 반영 비교표

韻	南北朝音	切韻音	秦音	吳音	漢音	東音
開口3等 祭韻을류	-iai	-iai	-iei	-e	-ei	-əi
開口3等 祭韻감류	-iai	-iei		-ei -ai -e	-ei	-jəi -jə
開口3等 廢韻	-iei	-iei		-ai	-ei	-ai

開口3等 祭韻 을류는 한국한자음에서 -əi형으로 나타나고, 祭韻 감류는 -jəi형으로 나타난다. 단지 -jə형이 혼재하고 있다. 일본 漢音은 을류가 감류에 합류한 秦音을 반영하여 감을류 모두 -ei형으로 나타난다. 吳音은 을류는 -e형으

로, 갑류는 주로 -ei형으로 나타나는데 일부 -ai형<sup>19)</sup>과 -e형이 혼재하고 있다.

祭韻의 主母音을 a로 반영한다면 日本 吳音은 을류는 -ai형으로, 갑류는 -jai형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일본 漢音에서 갑을류 모두 -ei형으로 나타나는 것을 고려하면 이 -ei형은 이경철·송재한(2009)에서 언급했듯이 실제로는 -jei형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祭韻 갑류에 나타나는 漢音·吳音의 -ei형은 모두 -jei형으로 귀추된다. 따라서 -ei형은 -iai가 主母音이 두 i母音 사이에서 前舌化된 [jei][jei]를 반영한 표기로 실제로는 -jei형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開口3等 祭韻은 한국한자음에서 을류를 -ai형으로, 갑류를 -jai형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한자음에서 祭韻 을류의 -ai형과 갑류의 -jai형 모두 갑을류를 구별하는 祭韻 전체의 체계상, 을류의 -ai형과 갑류를 -jai형은 秦音 이전의 층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祭韻 갑류의 한국한자음 -jə형의 반영에 대해서 河野六郎(1979a:442, 460, 499-500)는 -jə형은 單母音化<sup>20)</sup>라고 해석하였고, -jə형을 a층에 두고<sup>21)</sup> -jai형은 b층에 두었다. 한편 朴炳采(1971:137)는 -jə형은 上古音에서 中古音에 이르는 上古音 韻尾 -d가 母音化하기 이전의 반영<sup>22)</sup>으로 보았으며, -jai형은 中古音의 반영으로 -jə형이 -jai형보다 古層으로 해석하였다. 이에 대해 伊藤智ゆき(2002:148-149)는 唐代的 중국어에서 실제로 韻尾 i가 약화되는 현상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한국한자음의 -jə형은 중국 원음에서 韻尾가 약화 내지 탈락되었거나, 主母音이 e와 같이 좁아진 결과 韻尾 i를 알아듣기 어려워진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추정하였다. 한국한자음 -jə형은 伊藤智ゆきの 논처럼 韻尾 i가 듣기 어려웠기 때문에 중국 원음에서 韻尾가 약화 내지 탈락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jə형은 -jai형과 같은 층으로 해석할 수 있다.

開口3等 廢韻은 한국한자음에서 -ai형으로 반영되었다. 일본 漢音은 -ei형으로, 吳音은 -ai형으로 나타난다. 한국한자음 -ai형은 日本 吳音과 동형으로, 南北朝音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 4.2. 合口3等 祭韻 을류·祭韻 갑류·廢韻

<表19> 合口3等 祭韻 을류의 한국한자음

字音	해당례	母胎
----	-----	----

19) -ai형은 拗介音 i를 버리고 2拍의 直音表記로 대체한 결과로 파악된다.

20) 韻尾 i를 주요 모음 안에 흡수한 형태로 해석하였다.

21) -jə형으로 나타나는 것에는 기초적인 글자가 많다는 점에서 -jə형을 a층에 두었다.

22) 上古音에서 中古音에 이르는 jad>jäi의 上古音 韻尾 d가 모음화하기 이전의 ja>jä형의 반영으로 보았다.

-ui	위衛(于'Ø)	D
-uəi	궤擻/궤·궤蹶(見k)	AB

<表20> 合口3等 祭韻 갑류의 한국한자음

字音	해당례	母胎
-jəi	예睿銳테韃(喻'j)/테焜(澄d)/세歲稅稅說(心s)/예芮예蝻 (日ŋz)/궤蔽(幫p)/궤弊幣(竝b)/궤袂(明m)	AB
기타	궤靄(淸ts <sup>h</sup> )슈簪(邪z)	

<表21> 合口3等 廢韻의 한국한자음

字音	해당례	母胎
-jəi	예濊穢(影ʔ) /궤廢(非f)/궤肺(敷f <sup>h</sup> )/궤吠(奉v)	C BC
-uəi	궤喙(曉h)	B

<表22> 合口3等 祭韻 갑을류·廢韻의 中古音의 변화 및 한일한자음 반영 비교표

韻	南北朝音	切韻音	秦音	吳音	漢音	東音
合口3等 祭韻을류	-wīai	-wīai	-wiei	-wai -we	wei	-ui -uəi
合口3等 祭韻갑류	-wīai	-wiei	-iei	-wai -we	-ei	-jəi
合口3等 廢韻	-wīei -Pwīei	-wīei -Pwīei	-wiei -Fēi	-wai -we -ai	-wei -ei -ai	-jəi -uəi

합口3等 祭韻 을류의 한국한자음은 -ui형, -uəi형으로 나타난다. -uəi형은 갑류의 -jəi형과 구별하고 있다. 일본 漢音은 -wei형으로 나타난다.

한국한자음은 開口3等 祭韻 을류는 -əi형으로, 갑류는 -jəi형으로 반영된 점을 건주어 비교하면, 合口3等 祭韻 을류는 -uəi형이 기대되지만 -ui형이 나타나는 점이 특이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한자음 -ui형의 반영에 대해, 河野六郎(1979a:465)는 止攝과의 混淆로 지적하였으며 이들을 d층인 近世音에 두었다. 伊藤智ゆき(2002:155)는 [衛위]가 微韻의 [韋·偉·違] 등의 類推音일 가능성을 지적하였으며, 또한 『唱和圖』에서 蟹攝3·4等과 止攝 開合이 모두 합류함을 들어, 이를 宋代 초기의 반영으로 추정하였다<sup>23)</sup>.

23) 『翻譯村通事』와 『翻譯老乞大』에서 蟹攝 3·4等과 止攝 合口가 [위]로 나타나는 점을 들어 河野六郎(1968)가 이를 d층으로 분석한 것을 부정하였다.

開口3等 祭韻 을류의 -ai형이 갑류의 -jai형과 구별된다는 점에서 秦音 이전의 층을 반영한다고 할 때, 合口3等 祭韻 을류가 秦音 이전의 층을 반영한다면 -uai형, 즉 [웨]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이것이 -ui형, 즉 [위]로 반영된 것은 李京哲(2013:22)에서 언급되었듯이 止攝과 합류한 형태의 후기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다. 漢音에서도 祭韻 合口 을류는 -wei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한국한자음 [衛위]는 類推音이 아니라면 伊藤智ゆき(2002:155)의 논처럼 宋代 초기의 반영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sup>24)</sup>.

合口3等 祭韻 갑류는 한국한자음에서 -jai형으로 나타나고, 일본 漢音은 -ei형으로 나타난다. 한국한자음·日本漢音 모두 강한 拗介音에 合口音이 흡수된 상태를 반영하고 있다.

한국한자음 -jai형은 開口3等 祭韻 갑류와 같은 형태로 合口성이 배제되었다. 河野六郎(1979a:464)는 唇音字의 [폐]에 대해서 輕唇音化를 일으킨 형태라고 추정하며, 단지 y가 포함된 이유가 의문이라고 지적하였다. 河野六郎가 이러한 지적을 한 이유는 輕唇音化가 일어난 廢韻의 한국한자음이 [폐]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폐]라는 字音形에서는 李京哲(2013:23)에서 언급되었듯이 輕唇音化와의 관련성을 찾을 수 없다. 輕唇音化를 반영한 일본 漢音에서 [ɸi]로 나타나듯이, 한국한자음이 輕唇音化를 반영했다면 廢韻의 한국한자음은 [폐·배]로 반영되었어야 할 것이다. 즉 廢韻과 祭韻에서 나타나는 [폐]라는 字音形은 輕唇音化와 무관하기 때문에 그 字音形의 출현배경은 다른 데서 찾아야 한다. 더구나 祭韻은 唇音字뿐만 아니라 모든 音系の 字音形이 -jai형으로 출현하고 있다.

日本 漢字音에서 吳音은 물론 漢音에서도 合口 갑류에 合口성이 실현되는 점으로 보아, 李京哲(2013:23)에서 언급되었듯이 이는 한국한자음의 수용과정에서 나타나는 音韻結合상의 문제가 관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즉 -wiai는 吳音에서 -wei·-ei형으로 主母音을 e로 반영했듯이, 이미 南北朝音부터 主母音 a가 介音 i와 韻尾 i 사이에서 音聲의으로는 ə로 변화해 있었고, 이 主母音이 점차 e로 前舌化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 [-wiai]를 한국어로 수용할 경우 /위에uiəi/가 되지만, 이는 2音節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合口성과 拗音성 중 合口성을 버리고 拗音성만을 취한 결과로 판단된다.

合口3等 廢韻은 한국한자음에서 -jai형과 -uai형이 혼재하고 있다. 일본 漢音은 -(w)ei형, 吳音은 -(w)ai형, -we형으로 반영되었다.

한국한자음 -jai형<sup>25)</sup>은 合口3等 祭韻 갑류와 동형이기 때문에 秦音을 반영한

24) 현대 중국음에서 蟹攝 3·4等 合口韻과 止攝 合口韻은 -ui형과 -(w)ei형이 두 攝韻에 모두 혼재하고 있기 때문에 두 攝韻의 합류가 -wiei에서 -wi로 일괄적으로 이루어졌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을류의 한국한자음 -ui형은 伊藤智ゆきの 지적대로 宋代 초기를 모태로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25) 朴炳采(1971:137)는 口蓋의 拗音 때문에 合口성이 약화되는 데서 유래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것으로 보인다. 단 唇音字 -jəi형은 phjəi가 秦音에 걸친 輕唇音을 반영한 것이 라면 phai로 나타났을 것이다. 따라서 phyəi는 切韻音과 秦音 사이의 과도기적 단계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한자음 -uəi형은 ㅅㅏ3等 祭韻 ㅅㅏ류와 구 별하고 있으므로 切韻音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 5. 4等韻

<表23> 開口4等 齊韻의 한국한자음

字音	해당례	母胎
-jəi	계計筭筍繼髻繫鷄稽係(見k)/계啓溪契瀉谿(溪k <sup>h</sup> )/예猓寬 鯢詣貌盼(疑ŋ)/예攄翳(影ʔ)/혜醢(曉h)/계系혜蹊溪(匣h)/ 데帝堤邸砥砥抵테 · 더邸테 · 데諦테蒂嚏테 · 더 · 지底( 端t)/테體洩替테 · 테涕테梯(透t <sup>h</sup> )/데弟涕涕第萸梯涕啼 蹄提提醍題題테逮棣締締逆締(定d)/네 · 니泥彌(泥n)/ 레례麗禮禮례 · 러禮黎禮례예隸(來l)/제濟濟齋齋齋齊 濟(精ts)/체切체 · 취礎(淸ts <sup>h</sup> )/제齊齊劑擠齊제 · 지齊(從 dz)/세洗細(心s)/폐閉髮(幫p)/폐陸桂(竝b)	BC
-jə	더低抵砥抵테 · 더邸테 · 더 · 지底(端t)/더砥(澄d)/러屍 沴麗黎蠶례 · 러禮黎(來l)/처妻淒淒(淸ts <sup>h</sup> )/서西棲犀婿婿 (心s)	BC
-i	지底(端t)/리提(定d)/네 · 니泥(泥n)/리梨(來l)/미篋篋屍 菟蠅(幫p)/피批批(滂p <sup>h</sup> )/미臆臆(竝b)/미迷米靡(明m)	D
기타	히齏(匣h)/즈涕(精ts)/제 · 지齊(從dz)/떡湯(透t <sup>h</sup> )/체 · 취 礎(淸ts <sup>h</sup> )/스嘶(心s)	

<表24> ㅅㅏ4等 齊韻의 한국한자음

字音	해당례	母胎
-i	미篋篋蠅(幫p)/피批批(滂p <sup>h</sup> )/미臆臆(竝b)/미靡(明m)	D
-jəi	계桂(見k)/예覽(疑ŋ)/혜惠慧(匣h)/폐閉髮(幫p)/폐陸桂( 竝b)	BC
기타	규圭闈(見k)/휴携규哇(匣h)	

<表23> 開口4等 · ㅅㅏ4等 齊韻의 한일한자음 반영 비교표

韻	南北朝音	切韻音	秦音	吳音	漢音	東音
開口4等 齊韻	-ei	-iei	-iei	-ei	-ei	-jəi -jə -i
ㅅㅏ4等 齊韻	-wiei	-wiei	-iei	-(w)ei	-(w)ei	-i -jəi

開口4等 齊韻은 한국한자음에서 -jəi형으로 주로 나타나지만, -jə형과 -i형이 혼재하고 있다. 일본 漢音은 祭韻 갑류·을류와 동형인 -ei형으로 나타난다. 秦音에서는 3等 갑류와 4等 전속운이 합류하지만, 이것은 南北朝音부터 일관된 특성이다. 吳音은 -ei형으로 반영되었다. 合口4等 齊韻은 한국한자음에서 -i형, -jəi형, 陰韻尾가 탈락한 -ju형이 혼재하고 있다. 일본 漢音은 대부분 -ei형으로 나타나며 吳音은 -wei형으로 반영되었다.

한국한자음은 開口4等 齊韻과 合口4等 齊韻에서 開음을 불문하고 주로 -jəi형으로 반영되었다. 먼저 開口韻이 拗音으로 반영된 점으로 보아 南北朝音의 直音 e이었던 4等韻이 切韻音에서 拗音이 들어간 ie로 변했다는 기존의 학설을 인정한다면 이는 切韻音 이후의 층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合口韻은 3等 甲類의 경우와 같이 wi의 合口性和 拗音性を 동시에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拗音性만을 취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jə형의 반영도 祭韻 갑류에서 서술하였듯이 -jəi형과 같은 층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나머지 -i형은 拗介音과 陰韻尾 사이에 主母音이 끼여 前舌化한 近世音의 반영으로 판단된다.

## 6. 結論

본고는 한국한자음 蟹攝韻의 母胎別 層位에 대하여 일본 吳音 및 漢音과의 비교를 중심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開口1等 哈韻과 泰韻은 秦音에서 1等 重韻으로 합류하지만, 한국한자음은 中位母音系의 哈韻은 -ei형으로, 低位母音系의 泰韻은 -ai형으로 兩韻을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秦音 이전의 층을 모태로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合口1等 泰韻은 한국한자음에서 -oi형으로 나타나, 泰韻과 灰韻의 1等 重韻이 합류하는 秦音을 반영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合口1等 灰韻의 한국한자음 -oi형은 그 主母音을 /ɔ̃p/로 수용하여 이를 탈락시킨 형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ei형과 같이 秦音 이전의 층을 모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2) 開口2等 皆韻의 -ei형은 2等 重韻인 佳韻·夬韻의 -ai형과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秦音 이전의 층을, -ai형은 2等 重韻의 합류상을 반영하기 때문에 秦音을 모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佳韻·夬韻을 한국한자음에서 -ai형으로 반영한 것은 切韻音까지를, -ei형으로 반영한 것은 秦音을 모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合口2等도 皆韻은 -oi형, 佳韻·夬韻은 -oai형을 주층으로 하고 있기 때문

에 주층은 2等 重韻이 합류하기 이전인 切韻音까지의 층을 모태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한국한자음에서는 開口3等 祭韻 을류를 -ai형으로, 冑류를 -jəi형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한자음에서 祭韻 을류의 -ai형과 冑류의 -jəi형 모두 冑을류를 구별하는 祭韻 전체의 체계상 秦音 이전의 층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合口3等 祭韻 을류의 -ui형은 止攝과 합류한 近世音의 반영으로, 祭韻 을류의 -uəi형과 祭韻 冑류의 -jəi형은 을류에서는 合口性만을 冑류에서는 拗音性만을 반영하여 切韻音까지를 모태로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4) 開口4等 齊韻과 合口4等 齊韻에서 開合 모두 주로 -jəi형로 반영되었는데, 먼저 開口의 -jəi형은 拗音으로 반영된 점으로 보아 4等韻이 拗音이 된 切韻音 이후의 층으로 볼 수 있으며, 合口の -jəi형도 合口性和 拗音性を 동시에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拗音性만을 취한 결과로 나타난 자음형이기 때문에 開口와 같은 층으로 볼 수 있다. -jəi형도 -jəi형과 같은 층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i형은 主母音이 前舌化한 近世音의 반영으로 판단된다.

## 【參考文獻】

- 金武林(2006) 「한국 한자음의 근대성(1) 반영 양상의 종합」 『한국어학』 제30권, 한국어학회. pp.104-108
- \_\_\_\_\_ (2007) 「國語 漢字音의 體系的 近代性」 『한국어학』 제34권, 한국어학회. pp.113-139
- \_\_\_\_\_ (2012) 「中世國語 特異 漢字音의 時代性 論議-古代國語 借字表記와의 比較를 통하여-」 『한국어학』 제54권, 한국어학회. pp.129-126
- 金正彬(2007) 「安田八幡宮藏大般若波羅蜜多經分韻表」 『일본오음연구』 책사랑. pp.371-530
- 權仁澣(1997) 「漢字音의 變化」 『國語史研究』 國語史研究會. pp.318-319
- \_\_\_\_\_ (2006) 「中世國語漢字音」 『國語史와 漢字音』 박이정. pp.57-94
- \_\_\_\_\_ (2009) 『改訂版 中世韓國漢字音訓集成』 제이앤씨.
- 權赫竣(2000) 「『東國正韻』와 『古今韻會舉要』의 止通·蟹攝 음운체계 비교」 『中國語文論叢』 第12輯, 中國語文研究會. pp.203-234
- 朴炳采(1971) 『古代國語의 研究 音韻篇』 고려대학교 출판부. pp.128-139
- 辛容泰(1982) 「韓國漢字音의 母胎에 關する 考察」 『人文科學研究』 第1輯, 國際大學校. pp.121-153
- 李京哲(2001) 「日韓漢字音體系의 比較研究」 広島大学大学院 博士学位論文. pp.94-104
- \_\_\_\_\_ (2002a) 「河野六郎의 朝鮮漢字音唐代長安音說에 對한 反論-聲類를 중심으로-」 『日本語學研究』 第5輯, 韓國日本語學會. pp.97-114

- \_\_\_\_\_ (2002b) 「河野六郎의 朝鮮漢字音唐代長安音說에 對한 反論-韻類를 중심으로-」 『日本語文學』 第13輯, 韓國日本語文學會. pp.251-276
- \_\_\_\_\_ (2002c) 「四類介音의 合流時期에 對해서」 『日本文化研究』 第7輯, 한국일본학협회. pp.45-473
- \_\_\_\_\_ (2003a) 『한·일 한자음 체계의 비교연구』 보고서. pp.156-172
- \_\_\_\_\_ (2003b) 「中古漢語 韻尾體系의 再考」 『日語日文學研究』 第44輯, 韓國日語日文學會. pp.237-249
- \_\_\_\_\_ (2005) 『佛母大孔雀明王經』 책사랑. pp.171-274
- \_\_\_\_\_ (2009) 「中古漢語 撮口呼의 音韻 再考」 『日本研究』 第40號, 韓國外國語大學校 日本研究所. pp.297-309
- \_\_\_\_\_ (2012a) 「韓國漢字音의 輕唇音化 반영여부에 관한 考察-日本漢字音과의 比較를 중심으로-」 『日本學研究』 第36輯, 檀國大學校 日本學研究所. pp.323-343
- \_\_\_\_\_ (2012b) 「韓日漢字音 1·2等 開口韻 受容 樣相-日本漢字音과의 對照를 中心으로-」 『日本言語文化』 第22輯, 韓國日本言語文化學會. pp.269-285
- \_\_\_\_\_ (2012c) 「韓國漢字音 陽性·入聲韻의 開口 3等 ㅈ을류 區別 樣相-日本漢字音과의 比較를 中心으로-」 『日本文化研究』 第44輯, 동아시아일본학회. pp.491-507
- \_\_\_\_\_ (2012d) 「韓國漢字音 陰聲韻의 開口 3等 ㅈ을류의 區別 반영-日本漢字音과의 比較를 中心으로-」 『東北亞文化研究』 第33輯, 동북아시아문화학회. pp.269-280
- \_\_\_\_\_ (2013) 「韓國漢字音 ㅅㅌ3等韻의 반영양상에 대하여-日本漢字音과의 比較를 中心으로-」 『日本學報』 第95輯, 韓國日本學會. pp.13-29
- 이경철·송재한(2009) 「蟹攝 3等ㅈ류 祭韻의 吳音形에 대하여」 『日本學報』 第81輯, 한국일본학회. pp.59-70
- 李京哲·崔智淳(2013) 「韓國漢字音 曾攝韻의 母胎別 層位에 대하여-日本漢字音과의 比較를 中心으로」 『日本文化研究』 第48輯, 동아시아일본학회. pp.331-345
- 李京哲·崔智淳(2014) 「韓國漢字音 遇攝韻의 母胎別 層位에 대하여-日本漢字音과의 比較를 中心으로」 『日本學研究』 第39輯, 檀國大學校 日本學研究所. pp.237-256
- 李敦柱(1979) 『漢字音韻學의 理解』 탑출판사. pp.327-342
- \_\_\_\_\_ (2001) 「한국한자음의 특성」 『새국어생활』 국립국어연구원. pp.123-135
- 이승자(2003) 「조선조운서, 옥편의 이음대조표」 『조선조운서한자음의 전승양상과 정리규범』 亦樂. pp.232-271
- 李潤東(1997) 『韓國漢字音의 理解』螢雪出版社. pp.167-185
- 李準煥(2011a) 「16세기 후반·17세기 國語 漢字音 韻母의 대응 양상 및 특징(1)」 『한국어학』 제 51권, 한국어학회. pp.255-286
- \_\_\_\_\_ (2011b) 「16세기 후반·17세기 國語 漢字音 韻母의 대응 양상 및 특징(2)」 『大東文化研究』 第74輯,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所. pp.180-219

- 趙大夏(2005) 「韓日漢字音の比較対照研究序説-蟹撰字音の吳音と韓国漢字音との対比を中心に」 『日本學報』 第65輯, 韓國日本學會. pp.241-252
- \_\_\_\_\_ (2006) 「日本吳音と韓国漢字音との対比研究」 『日本言語文化』 第9輯, 韓國日本言語文化學會. pp. 201-213
- 최미현(2006) 『한국 한자음의 이중음 연구』 동의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38-50
- 최희수(1996) 『조선한자음연구』 한국문화사. pp.151-165
- 有坂秀世(1936) 「漢字の朝鮮音について」 『方言』 5月号(1957에 재록)
- \_\_\_\_\_ (1957) 『国語音韻史の研究 増補新版』 三省堂. pp.303-336
- 伊藤智ゆき(2002) 『朝鮮漢字音の研究』 東京大学 学位論文. pp.134-156
- 小倉肇(1979) 「金光明最勝王經音義字音攷(Ⅱ)」 『弘前大学教育学部紀要』 第41号, 弘前大学. pp. 1-10
- \_\_\_\_\_ (1995) 「法華經音義字音対照表」 『日本吳音の研究』 新典社. pp.426-443
- 河野六郎 『朝鮮漢字音研究』 天理時報社(1979a에 재록)
- \_\_\_\_\_ (1979a) 「朝鮮漢字音の研究」 『河野六郎著作集2』 平凡社. pp.442-500
- \_\_\_\_\_ (1979b) 「資料音韻表」 『河野六郎著作集2』 別冊, 平凡社. pp.308-322
- 佐々木勇(2009) 『平安鎌倉時代に於ける日本漢音の研究 資料篇』 汲古書院. pp.82-550.
- 高本政雄((1982) 『日本漢字音の研究』 風間書房. pp.488-505
- 榎木久薰(1989) 「光明真言土沙勸信記の字音について」 『鎌倉時代語研究』 第12輯, 鎌倉時代語研究會. pp.215-284
- 柏谷嘉弘(1965) 「図書療本文鏡秘府論字音点」 『国語学』 第61集, 国語学会. pp.403-473
- 沼本克明(1995) 「觀智院本類聚名義抄和音分韻表」 『日本漢字音史論輯』 築島裕<編>, 汲古書院. pp.160-164
- 平山久雄(1967) 「中古漢語の音韻」 『中国文化叢書1 言語』 大修館書店. pp.28-147
- 滿田新造(1926) 「朝鮮字音と日本吳音との類似点に就て-朝鮮に於ける字音伝來の経路-」 『東洋学報』 第15券 第3号, (1964에 재록)
- \_\_\_\_\_ (1964) 『中国音韻史論考』 武藏野書院, pp.606-632
- 王力(1985) 『漢語音韻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pp.215-244
- 李方桂(1980) 『上古音研究』 商務印書館. pp.36-73
- 董同龢(1944) 『上古音韻表稿』 國立中央研究院 歷史語言研究所. pp.123-249
- 鄭張尙芳(2003) 『上古音系』 上海教育出版社. pp.70-249
- E. G. Pulleyblank(1984) *Middle Chinese: A Study in historical phonology*,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press, pp.110-111
- Ting Panghsin(1975) *Insitute of History and philology Academia Sinica*, Taipei, pp.103-110
- Günter Wenck(1957) *Japanische phonetik*, Otto Harrassowitz Wiesbaden, pp.203-218
- Bernhard Karlgren(1954) *Compendium of Phonetics in Ancient and Archaic chinese*, Stockholm, pp.42-103

## 要 旨

本稿では、蟹摂韻に於ける韓国漢字音の母胎別層位について、日本吳音及び漢音と比較・考察した。その結果をまとめると以下のようである。

1) 開口1等の哈韻と泰韻は、秦音で一等重韻として合流するが、韓国漢字音は中位母音系の哈韻は-*ei*形で、低位母音系の泰韻は-*ai*形で兩韻が区別されているので、秦音以前の層を母胎にしていると考えられる。合口1等の泰韻は、韓国漢字音で-*oi*形で現れ、泰韻と灰韻が合流した秦音の反映と見られる。合口1等の灰韻の韓国漢字音-*oi*形は、主母音を/ɔ e/で受容し、これが脱落した形態であるので、-*ei*形と同じ秦音以前の層を母胎にしていると考えられる。

2) 開口2等の皆韻の-*ei*形は二等重韻の佳韻・夬韻の-*ai*形と区別しているので秦音以前の層を、-*ai*形は2等重韻の合流した秦音を母胎にしていると考えられる。佳韻・夬韻が韓国漢字音で-*ai*形で現れたのは切韻音まで、-*ei*形で現れたのは秦音を母胎にしていると考えられる。合口2等の場合も、皆韻は-*oi*形を、佳韻・夬韻は-*oai*形を主層にしているので、主層は2等重韻が合流する以前の切韻音までの層を母胎にしていると考えられる。

3) 開口3等の祭韻乙類は-*ai*形で、甲類は-*jai*形で現れ、甲乙類を区別している所以、秦音以前の層を母胎にしていると考えられる。合口3等の祭韻乙類の-*ui*形は、止摂と合流を反映を見せているので近世音の反映で、乙類の-*uai*形と甲類の-*jai*形は、乙類では合口性のみを、甲類では拗音性のみを反映している所以秦音以前の層を母胎にしていると考えられる。

4) 齊韻は開合共に主に-*jai*形で現れる。開口は、拗音で反映されていることから4等韻が拗音になった切韻音以後の反映であり、合口も合口性と拗音性を共に反映できないので拗音性のみを現わした字音形であるので開口と同じ層であると考えられる。又、-*i*形は主母音が前舌化した近世音の反映であると考えられる。

キーワード：蟹摂、重韻、南北朝音、切韻音、秦音、母胎

투 고 : 2013. 11. 30  
1차 심사 : 2013. 12. 14  
2차 심사 : 2014. 1. 4